

: 2025 11 8 5:59



자주솜대 / Smilacina bicolor Nakai

| 구분 | 설명 |
|-------------------|--|
| 생물 분 류 | 식물 |
| 속국명 | 두루미꽃속 |
| 과국명 | 백합과 |
| 과명 | Liliaceae |
| 일반특징 | 요약설명: 백합과 여러해살이풀로 우리나라의 강원도 강릉시, 속초시, 양양군, 인제군, 정선군, 평창군, 홍천군, 전라북도 남원시, 무주군,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자란다. 분포지역: 한국(강원도 강릉시, 속초시, 양양군, 인제군, 정선군, 평창군 등) 형태: 여러해살이풀이다. 크기: 높이 30~45㎝ 꽃색: 검정색,노란색,자주색 개화기: 5월,6월,7월 잎은 타원 모양 또는 넓은 타원 모양이고 양 끝이 좁다. 밑부분이 갑자기 아래로 이어져 짧은 잎자루가 된다. 털이 거의 없으며 뒷면 맥 위에 작은 돌기가 약간 있다. 꽃은 6~7월에 피고 총상꽃차례는 가끔 1개 정도 가지가 갈라진다. 꽃이 달린 부분은 돌기가 없다. 꽃이나 싹을 보호하는 작은 잎은 갈색이고, 꽃자루는 옆으로 퍼진다. 꽃덮이조각은 타원모양이고 예두며 가장자리가 뒤로 말리기도 한다. 또한 처음에는 노란색을 띠지만 자줏빛이 도는 검은색으로 변하며 점이 있다. 수술은 6개이고 수술대는 밑부분이 넓다. 씨방은 방이 3개이고 둥글며, 암술대는 뭉뚝하다. 열매는 장과고 둥근 모양이며 다갈색이다. 줄기 밑부분에서 칼집 모양으로 생긴 잎 2~3개가 줄기를 완전히 둘러싼다. 또한 끝에 5~7개의 잎이 두 줄로 달린다. 굵은 뿌리줄기는 옆으로 뻗는다. 백두산지역에서는 분비나무 및 잣나무 밑에서 자란다. 지리산 반야봉 정상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국내에서만 나고 자라는 특산 식물이다. |